



이동식 / KBS-ITV 편집주간

벌레의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

지난 2월 1일 세계인들은 참혹한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아야 했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 호가 발사되다가 공중에서 폭발함으로 써 그 안에 탔던 승무원들이 순식간에 공중에서 산화한 것이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의 온도는 수 천 도가 넘는데, 그 과정에서 폭발까지 했으니 그 안에 있던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콜럼비아호 안에 있던 우주실험용 벌레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미 항공우주국, NASA에 따르면 지상에 떨어진 파편과 유품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주실험용으로 실었던 벌레용기를 수습했는데, 그동안 용기를 개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열어보니 '캐노헵디티스 엘레간스'라는 선형동물이 용기 안에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벌레들이 배양접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벌레들은 선형동물의 일종으로 땅속에서 썩은 식물을 먹고 살며 연필심 끝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다. 용기를 개봉한 시간은 사고가 난 지 석 달이 지나서이고, 이 선형동물의 수명은 7일에서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 움직이는 이 벌레들은 콜럼비아호에 탔던 그 벌레로부터 적어도 10대는 내려간 자손으로 보이지만 그 우주선 폭발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랍기만 하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생명체가 고도로 발전했다고 생명력이 커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문명이 발전할 수록, 생활이 편해질수록 인간들은 예전에 보지 못하던 질병으로 고전하고 있다.

'사스' 라는 질병이 그것 아닌가? 인간이 진화한 만큼, 온갖 치료제의 공격을 견딘 새로운 바이러스가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21세기 인간들은 더욱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자 운동도 하지 않고 배만 앞세우는데, 그 틈에 생활습관 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른바 성인병이 파고들어 이 고도의, 생명 역사상 가장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이란 종을 위협하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2세기 중국에서 송나라라는 고도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에 쫓기어 나라의 대부분을 잃고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일이나, 그 뒤에 사막에서 일어난 몽고족이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세계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듯 국가나 민족, 또는 개인의 생명은 그것이 얼마나 발달하고 진화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힘, 커가는 힘, 성장하려는 의욕이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

우리들은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랄까 배부른 안락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아래,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아래 돈을 버는 시스템만을 보호하고 그 돈을 적절히 분배해서 우리 사회의 활력을 키우는 데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서도 우리들은 아이들의 안락함을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라고만 생각해서 자녀들의 노력과 의지, 생활력을 키우는 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종 과외로 외면적인 경쟁력을 주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자녀들의 자발적인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는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미국 우주왕복선 폭발사고에서 살아남은 별레들을 생각하다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지만, 경제위기로, 사스로, 우리들 모두가 불안해지는 요즘이 현재 우리가 서있는 위치에서 우리들의 생명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머리를 친다. **DPK**